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俑의 이해

오 세 은*

I. 머리말

II. 中國陶俑의 탄생과 시대적 특징

1. 中國陶俑의 탄생과 의미
2. 陶俑의 발달과 시대적 특징

III.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俑의 종류와 특징

1. 상상의 도용
2. 생활의 도용

IV. 맺음말

*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중국도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 역사상 도용의 탄생시기와 도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시대적 특징을 서술하여 중국도용의 변천과정과 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중국에서 처음 도용이 제작된 것은 순장을 대신하기 위함이며, 훗날 제도로 정례화고 망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漢族의 풍속으로 商代에 처음 나타나 秦·漢代에 한번의 발전을 이루고, 천년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唐代에 다시 한번 부흥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룬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용을 상상의 도용과 생활의 도용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상상의 도용은 다시 鎮墓俑과 十二支神像으로 나누어 그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 두 종류의 도용은 亡者가 죽은 후에도 안녕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무덤의 입구 등지에 액막용으로 사용되었다. 생활의 도용은 당시 망자와 함께 했던 신하, 하인, 마부, 무희, 말, 소, 낙타, 사자 등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였던 인물과 동물을 도용으로 제작하여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행하게 하였다. 사후에 망자가 편히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절실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이런 도용들은 각 시대에 예술품을 만드는 기술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며 당대에는 화려한 삼채로 부활되어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한다. 이렇듯 중국도용은 각 시대의 대표 예술품으로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주제어] 中國陶俑, 厚葬制度, 鎮墓俑, 三彩, 說唱俑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중국의 南北朝時代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鎮墓獸, 三彩馬, 胡人俑, 十二支神像, 說唱俑 등 도용 4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 도용들은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으로 대부분 중국 唐 時期에 제작되었다.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시아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2000년대 국외경매 구입품 이외에 1920년대 입수된 중국도용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2008년 아시아관 테마전 〈영혼과의 동행〉에서 한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00년대 구입품은 대부분 당대 삼채용으로 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1920년대 구입된 중국도용은 유약이 발리지 않은 소조품으로 대부분 색이 박락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어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과 색채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이러한 복원 과정에서 중국의 중국도용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게 되었다. 이번 논고에서 그 결과를 도용의 유래와 제작시기, 명칭, 용도 등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도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II. 中國陶俑의 탄생과 시대 특징

1. 中國陶俑의 탄생과 의미

도용은 흙으로 만든 사람 또는 동물의 형상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가옥 등 건축모형도 포함한다. 중국고대 문헌에는 도용을 土偶, 土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도용이라는 명칭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선사시대부터 암각화나 토기에 인물 또는 동물 형상을 남기었으며 이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포함한 정신세계와 삶을 표현한 것이다. 훗날 이러한 표현력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작되어 무덤에 매장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까지 특별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도용이다.

고대 중국에서 도용을 만든 목적은 만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제작하였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제작자의 관념 속에는 도용의 형상 속에 모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도용은 당시 사람의 생각과 생활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孟子 梁惠王 편에 “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爲其象人而用之也。”(『孟子』 梁惠王條) (공자

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俑을 만든 사람은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이란 구절이 있듯이 처음 도용을 만든 자는 후손이 끊긴 자였다는 뜻이다. 또한, 후대 사람들이 비록 산 사람의 순장은 아니지만 도용에 영혼이 있다 생각하여 순장한 것을 공자가 비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완성된 인물용은 1937년 河南省 殷墟에서 출토된 한 쌍의 남녀 노예용으로 손발이 묶인 모습이다(그림 1). 이것은 商代 末期(기원전 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는 노예제사회로 청동기, 도용 등의 장식으로 천한 신분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김없이 노예가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또한, 河南省 鄭州 二里崗遺蹟의 상대 초기 灰坑에서 호랑이, 양머리, 거북이, 물고기 등 동물용이 발견되었으



그림 1. 奴隸俑, 商 末期, 높이 5.5~6.1cm, 河南省 安陽 小屯 출토

며 安陽 小屯의 상대후기 회갱에서는 소머리와 부엉이가 출토되었다. 모두 제작기법이 비교적 조잡하지만 형상은 매우 사실적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상대의 도용은 비교적 수량이 적지만, 그 종류는 노예용과 소량의 거북이, 양 등 동물도용이 있다. 그 다음 왕조인 서주시기의 것도 아직까지는 발견된 예가 적다. 이렇듯 상주시기는 출토수량과 제작기법으로 미루어 중국 고대도용의 탄생기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도용을 순장과 함께 묻는 풍습은 春秋時代까지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山東 臨淄 郎家庄의 1호묘에서 춘추시대 사람의 순장과 함께 도용이 발견되었다. 이 시기의 男俑은 대부분 무사와 기마인물상이며, 女俑은 노비와 무희 도용이다. 남용은 무사용과 기마용이고, 여용은 노비와 기악무도용인데 대부분 윤곽만을 표현하였다. 용도와 신분은 알 수 있지만 예술기법이나 표정은 세밀하지 못하다. 춘추시대까지는 이렇게 형태가 간단하고 조잡하여 도용 제작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戰國時代 봉건사회가 성립되고 유교 등의 학문이 발전하면서 여러 성인들의 성찰 속에 잔혹한 순장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 대신 무덤에는 도용을 부장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山西 分水嶺 제14호묘에서 크기도 작고 세부적인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변혁기의 혼란스런 사회현상을 그대로 형상에 내포하고 있는 도용 18개가 출토되었다. 이렇듯 이 시기의 河南, 河北, 湖南, 湖北省 등 중원지역의 대형과 중형무덤에서 모두

도용이 출토된다. 이처럼 전국시대부터는 부장되는 도용의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 종류와 표정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秦·漢代 도용 발전에 영향을 미쳐 중국 최고의 걸작품인 서안의 진시황제 병마용으로 집성되었다.

2. 陶俑의 발달과 시대 특징

중국도용은 고대 왕조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중국 황실과 귀족들은 생전의 권력 유지와 영생을 위하여 살아 있을 때부터 꾸준히 사후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도용을 만들어 부장품으로 매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후장풍습은 秦代와 漢代 그리고 唐代에 매우 유행하였다.

진대 진시황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기의 세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자 陝西 西安부터 驪山¹⁾까지를 본인의 陵으로 건축하고자 하였다. 무덤 안에는 사후세계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현세와 같이 유지하고자 20만여㎡에 다다르는 면적에 실제 사람과 대동소이한 병사들과 마차, 말 등을 몇 천개의 도용으로 만들어 부장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 2, 3호 병마용갱이다. 이러한 병마용군은 당시 진시황제 군대를 그대로 옮겨 만든 것으로 거대한 중국 역사의 한 장면을 알 수 있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제작되기 시작한 도용의 기원이 된다.

한대의 도용은 진대 도용과 비교하여 그 종류의 다양성으로 중국 塑造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대는 진대의 법령과 경제제도를 기반으로 점차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이에 매장풍습도 자연스럽게 厚葬 풍습이 유행하였다. “今京師貴戚，郡縣豪家，生不極養，死乃崇喪，多理珍寶偶人車馬，” 삶과 같이 사람들은 생전에 향유한 일체를 죽은 후에도 향유하고자 도용의 소재가 점차 풍부해지고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예를 들면 亡者의 안녕을 기원하고 망자를 공양하는 역할자로 내세에서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녀용, 사병용, 무사용, 무녀용, 기악용, 백시용, 설창용 등을 함께 매장하였다. 이러한 도용들은 죽은 자 생전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또한, 죽은 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가무단도 만들어 연회 모습까지도 재현해 놓았으며, 한대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사실주의 표현은 비록 진대의 도용보다는 그 크기가 현저히 작아지지만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西漢 末期부터는 유약을 바른 도용이 출현하는데, 이

1 驪山: 陝西 臨潼縣에 있는 산 이름

러한 전통은 훗날 南北朝時代의 채색도용과 唐代의 삼채도용에까지 계승되어 중국도용 제작의 전성기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조시대에는 중국 역사상 민족 간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이며 중원지역에 거주하던 한족과 북방 소수민족이 남쪽으로 이주가 일어나면서 민족 간에 융합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무덤에 매장된 부장품에도 반영되어 본래 한족의 풍습인 도용은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에서 도용이 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특징이 가미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남북조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도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 이에 조조는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자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부장품으로 애용되던 도용 풍속 역시 일시적으로 쇠퇴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장되는 도용은 대체적으로 수량은 감소하였고 세부묘사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 졌다. 그러나, 낙양지역에 위치한 西晉은 당시 국가적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의제도를 정비하여 부장되는 도용에도 새로운 규범을 적용시켰다. 그 규범은 당대에까지 이어졌으며, 모두 4가지 기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묘용(진묘수와 무사용), 의장용(우마차와 의장용 말), 인물용(시종드는 시종용과 악무용 위주), 동물용(가축용, 돼지, 개, 닭 등)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비록 동한시기의 수려한 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형태가 쇠퇴하지만, 하남성 낙양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당대는 중국의 고대문화가 부흥 발전하는 시기로 지역별로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한다. 부장 풍습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매장되는 부장품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그 중에서도 한대의 후장풍습이 다시 부흥하여 엄청난 수량의 도용이 제작되어 무덤에 부장되는데 진·한대용과 비교하여 보면 그 수량과 사용된 소재가 매우 다양해진다. 이러한 도용은 과거 황실이나 귀족이 사용하던 보물은 아니지만 당시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입었던 복식, 머리 장식, 자세와 동작, 실제로 거주했던 집의 모습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했던 생각을 표현해 놓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다. 여기에 중앙 아시아를 통해 수입된 각종 안료와 유약을 바르고 원시도자를 굽던 기술이 더해져 삼채도용이 출현하여 더욱 화려한 면모를 띠게 된다. 삼채도용은 그 형상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이다. 형태를 만들어 다듬고 굽고 채색하고 유약을 바르는 등 여러 공정을 거치며 완성하고 이러한 원숙한 기교는 개개의 형태가 아름답고 비율이 정확한 생동감 넘치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당대 도용도 남북조시대 도용과 마찬가지로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남북조시기보다 발전하여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다. 진묘용은 무사용, 진묘수 이외에도 천왕용과 12지 신상이 생겨났고, 의장용은 마차, 말, 낙타 등이 중요 대상이지만 무사기마용, 악대의장용,

수렵용, 집을 나르는 말용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도용으로 제작되었다. 여기에 집에서 부리던 시종과 동물이 포함되며 또 하나의 특징은 호인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대는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서역지방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낙타와 아라비아 말 등 이국적인 동물이 유입되었고 사람들도 이러한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이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무덤에서는 종종 쿠차나 돌궐 등 호인이 마부도용으로 분하여 등장한다.

당대 도용의 매장제도

唐代에는 秦漢時代의 厚葬이 부흥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관직과 신분으로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을 정하여 사후를 준비하였다. 부장품 중에는 도용의 수량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관직에 따라 도용의 크기도 제한되었다.

甄官令掌供琢石陶土之事. ……凡喪事葬, 則供其明器之屬. ……三品以上九十事, 六品以上六十事, 九品以上四十事. (『唐六典』, 『通典』條)

(도공은 돌을 다듬고 흙으로 도기를 만드는데 상을 당하면 장례에 명기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3품 이상은 90개, 6품 이상은 60개, 9품 이상은 40개이다. (『당육전』, 『통전』조)

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中國陶俑의 종류와 특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도용은 한대, 남북조시대, 당대, 명대 도용이 있으며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 위한 상상속의 도용과 망자가 현실에서 누렸던 복을 지속시켜 주는 의미의 생활도용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상상의 도용

1) 鎮墓俑

진묘용은 무덤의 입구를 지키거나 무덤의 외곽을 지키는 도용을 말한다. 중국에서 진묘용이 처음 등장한 것은 戰國時代로 楚나라무덤에서 나무로 만든 사슴뿔을 달고 있는 동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진묘수이다. 중국의 진묘수는 남북조시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모습이 아닌 이렇게 동물 형상에 같거나 뿔이 달린 정도의



그림 2. 陝西省 西安 中堡村 唐墓 평면도

동물형상으로 만들어졌다(그림 3). 이러한 형상은 우리나라 백제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진묘수와도 그 모습이 유사하다(그림 4).

우리와 알고 있는 무섭고 흉악한 액막용의 진묘는 唐代에 비로소 출현한다. 무덤의 지상에 측백나무를 심고 석사자, 석인 등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남북조시대에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 진묘수, 천왕용, 무사용, 12지신상이 세트로 매장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唐會備>에 “四神十二支”(“사신”은 두 개의 진묘수와 두 개의 무사용 또는 천왕용을 가리킴)와 입체식의 방호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진묘용은 그 기능에 따라 神王俑과 怪獸俑으로 나눌 수 있다. 신왕용은 무덤의 주인을 보



그림 3. 鎮墓獸, 南北朝(참고)



그림 4. 鎮墓獸, 武寧王陵 출토(참고)

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 모습은 불교의 天王像과 비슷하다. 괴수용은 흔히 진묘수라고 부르며 서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人面獸身의 형태가 기원전 2세기경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이 양식과 南北朝時代의 鎮墓獸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진묘수가 당대에 탄생한 것이다. 그 모습은 받침대 위에 직립의 人面獸身과 獸面人身의 두 가지 형상을 취하고 있고, 특히 머리에 화려한 뿔이 있어 강렬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상이다.

(1) 鎮墓獸

진묘수의 처음 기능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죽은 자를 지키는 역할 즉, 무덤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점차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여 영혼의 승선을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남북조시대의 진묘수는 동물형상에 같기가 있는 모습이다. 위협적인 귀신의 모습보다는 마치 집을 지키는 고양이처럼 지킴이 역할로 보인다(그림 5).



그림 5. 鎮墓獸, 南北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4257)

이에 비해 당대 초기의 진묘수는 인면수신의 비교적 흉악한 모습이다(그림 6). 당시 서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인면수신의 형태가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에 전래되어 진묘수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후 발전되어 ‘獸面獸身’과 ‘人面獸身’의 전형적인 한 쌍의 진묘가 삼채²⁾로 제작되었다. 몸체는 삼채로 제작되어 있지만, 인면수신의 얼굴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고 당 초기(그림 6)에 비해 귀와 뿔이 매우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7).

(2) 鎮墓武官俑

진묘무관은 당대 “四神十支時”의 일종으로 당대 초기무덤에서 많이 보이며 이후 천왕용으

2 三彩: 삼채는 백색 점토를 태토로 하여 납이 함유된 저화도 유약을 시유하고 700~800℃의 저온에서 굽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대의 연유(鉛釉: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저화도의 유약) 도기에서 발전하였다.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철, 구리, 망간, 코발트 등의 여러 가지 금속이 안료로 사용되어 여러 가지 색이 어우러져 있다. 화장토를 바른 후 각각의 색유로 조형하여 녹, 황, 자, 홍, 백, 남, 흑색 등의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다. 당삼채는 주로 중국 서안과 낙양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무덤에 매장된 부장품을 제외하고도 罐, 壺, 燈, 盤, 碗 등과 같은 일상용기의 그릇류도 상당 수 있다. 盛唐時期에 유행한 삼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수출되었지만 말기 이후에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림 6. 鎮墓獸,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139)



그림 7. 三彩鎮墓獸,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14210)



그림 8. 鎮墓武士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49)



그림 9. <그림 8>의 세부

로 대신하게 된다. 이 도용은 묘실의 입구를 수호하거나(그림 2) 묘실의 네 귀퉁이에서 발견되는데, 일반적으로 무덤에 부장되는 일반 무사 또는 병사용과 비교하여 그 크기와 생김새에서 차별화 되어 있다. 弁冠³⁾을 쓰고 있으며 부리부리한 눈과 콧수염 등이 있어 흉악하고 무서운 얼굴을 띄며 대좌 위에 서 있고 형상이 비교적 큰 편이다. 폭이 좁은 윗도리에 짧은 소매의 겹옷과 세필로 얼굴에 가느다란 털과 수염까지 표현하였으며 커다란 흉상의 뒤통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쪽 손은 들어 올려 동그랗게 말아 주먹을 쥐고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식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목제로 제작된 무기로 추정된다. 복장의 색채는 이미 박락되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陝西省 西安에서 출토된 진묘무관용(그림 10)을 미루어 볼 때 붉은색과 초록색이 조화된 당대의 무인의복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림 8, 9).



그림 10. 鎭墓武官俑, 中國 陝西省 西安 출토(참고)

(3) 鎭墓文官俑

진묘문관용은 무덤 입구 좌우에 진묘무사용과 함께 배치하였다(그림 2). 진묘문관용은 무사용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크며 대좌위에 서 있고 높다란 介幘⁴⁾을 쓰고 소매폭이 넓은 복식을 갖추어 입고 있다. 세필로 눈썹과 수염을 묘사하였고 입술에 붉은색으로 채색을 하였다. 의복 흉부에는 운문이 남아 있으며 두 손을 모으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부식되었지만 역시 목제로 만든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받침에는 귀신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의복은 넓은 소매와 긴 겹옷(袍)을 걸치고 있고, 바닥의 앞이 올라간 신발(屐)을 신고 있다. 앞이 올라간 신발은 하의가 길어지고 넓어짐에 따라 걸을 때 걸림을 방지하기

3 변관: 중국에서 무관이 갑옷을 입고 머리에 쓰던 투구로 고깔처럼 위부분이 붕긋하게 올라와 있다.

4 개책: 중국의 전국 시대에 문관이 쓰던, 형짚으로 만든 관(冠).



그림 11. 鎮墓文人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10638)



그림 12. <그림 11>의 세부

위한 양식으로 이러한 의복양식은 당시 사회에 유행한 귀족복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진묘무관상과 비교하여 표정이 온화한 편이며 전체적으로는 색채가 많이 박락되어 있다(그림 11, 12).

2) 12支神像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12개의 支神(띠)을 중시하는 풍습이 있었다. 唐代에는 이런 사상이 더욱 강화되어 하나의 의식으로 관례화되었고 도용으로도 제작되었다. 보통 辟邪의 의미로 무덤에 매장되었으며, 진묘무사용과 함께 “四神十二時”라 하였다.

12지신상은 남방과 북방지역에서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북방에서는 단 기간 유행하며 출토수량도 적다. 형태는 오직 12가지 동물머리에 사람의 신체 구조인 ‘獸首人身’만 제작되었다. 그러나, 남방에서는 오랜 시간 제작되며 그 제작시기에 따라 형태도 다르고, 출토 수량도 많다. 초기는 수대 말부터 당 현종까지이며 동물의 실제형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매장하였다(그림 13). 중기는 당 현종 이후에서 말기까지이며 동물머리에 사람 몸, 즉 ‘수



그림 13. 12地神像, 唐 初期(참고)



그림 14. 12地神像, 唐 末期

수인신'의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당 말기부터 오대까지는 말기에 해당하며 인자한 사람이 12가지 동물 중에 한 마리씩을 각 각 안고 있는 형상이다(그림 14).

이러한 12지신상(‘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 해당)은 무덤의 동, 서, 남, 북 4방향(子南午北)의 감실(小龕)에 3개씩 놓았다. 가끔은 석관위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12지신을 모두 넣어야 하지만 가끔은 몇 개만 출토되기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2지신상은 당대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호랑이, 뱀, 개 등 3개의 ‘수면인신’ 삼채도용이다. 얼굴부분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다(그림 15).

이러한 당대 중기의 수면인신의 12지신상은 그대로 통일신라시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기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도용은 흙으로 빚은 도용 뿐 아니라 곱돌을 깎아 만든 것도 모두 수면인신의 형태로 긴 겹옷을 입고 옷 소매속으로 손을 감추고 있는 전형적인 당대 중기 12지신상이다(그림 16, 17).



그림 15. 12地神像(호랑이, 뱀, 개), 唐, 구3343, 구3341, 구3342



그림 16. 12地神像(쥐, 닭, 돼지),
신라 8세기 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그림 17. 12地神像(돼지, 닭, 원숭이, 개), 신라 9세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경주4489)

2. 생활의 도용

1) 動物俑

(1) 馬俑

말은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 중의 하나로 도용이 처음 제작되었을 때부터 무덤에 매장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 등이 잘 반영되어 있는 도용 중의 하나이다.

〈그림 18〉의 채색마용은 남북조시대의 도용이다. 남북조시대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도용의 명맥만이 이어져 대부분 소략하게 만들어 무덤에 매장된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에 위치한 북위는 도용 매장 풍속을 매우 중시 여긴 나라이다. 따라서 이 채색마는 중원지역의 토종말의 형태로 고개를 숙인 말의 표정과 애수에 찬 눈 등이 매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안장도 전 시기와 비교하여 허리 밑으로 길게 늘어드리고 말에 입혔던 목걸이와 갈기를 묶어 표현한 뿔모양 장식 등이 잘 남아 있어 당시 말의 장식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당대 마용은 토종말과 수입말 두 가지 형태 출토된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당대 초기 황실이 보유한 말은 5천 필로 수적



그림 18. 彩色馬俑, 南北朝(北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4258)

으로 절대적 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당 왕조는 공납, 무역, 전쟁 등을 통하여 말을 외국에서 대대적으로 수입하는데 그 종류가 약 80여종에 이르렀다고 한다. 북부지역의 몽고와 시베리아지역 일대에서 돌궐말, 위그르말, 말레시아말 등 28종이 수입되었고, 서부지역에서는 토욕혼⁵⁾말, 페르시아말 등 30여종이 수입되었다. 동북지역에서는 거란말 등 8종이 수입되고 서남지역에서는 인도말, 투루판말까지도 수입되었다. 서북지역의 말 종류로 아라비아 계통의 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新唐書』에 보면 당 현종 때 대식국⁶⁾에서 9차례나 말을 보내 헌납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로써 7세기 중엽 당 왕조는 말 76만 필까지 소유 하게 되었는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마용을 보면 당대에는 북방의 작은말과 서역의 의장용말 및 두 개의 교잡종말이 존재하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서역의 말은 눈이 크고 코가 길고 목이 긴 체형으로 신체가 균형이 잡혀있고 말굽이 크며 사지가 길고 튼실하다. 이런 수입말은 당대 무덤의 벽화에서도 자주 보이며 주로 의장용으로 사용되었다. 무덤에서는 주로 삼채로 그 특징을 나타내어 묘실 입구 쪽에 매장하였다. 이에 반해 목이 짧고 다리가 굵고 짧은 토종말들은 당대 초기 마용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 본토 또는 거란지역의 말이다. 대부분 짐을 운반하거나 여성들이 이용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그림 19>의 삼채마는 서역에서 수입된 말의 형태로 긴 목과 코가 길고 눈이 크며 신체가 균형이 잡혀있다. 또한 살집이 있으며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사지가 길고 발굽이 높다. 꼬리는 둥글게 말려 묶여 있는 것이 당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아라비아 계통의 말로 갈색의 유약과 하얀색 갈기가 잘 표현되어 있다. 민첩한 준마의 형상을 하고 있고 마구도 선명하여 고삐와 녹색의 안장, 밀치끈에는 화려한 꽃과 개구리 장식이 되어 있어 의장용으로 부장된 도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일반 마용보다 체구가 작지만 삼채 중에 보기 힘든 코발트색으로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수입된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였다. 우유빛의 유약과 매우 조화롭게 제작되었다. 당 삼채의 도용 중에 가끔은 이렇게 엉뚱한 색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갈색 말처럼 그 색깔이 자연의 색과 어울리는 안료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도용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문양의 효과를 내 주지만, 이렇게 원래의 것과 수입안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경우도 종종 있다. 보통 말을 장식하는 흑색이나 갈색 대신 아주 독특하게 코발트색을 사용한 것은 도공이 용의주도하게 시유한 색으로 독특한 삼채말을 잘 표현하고 있다.

5 토욕혼: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하나로 지금의 甘肅과 青海 일대에 분포하였음.

6 대식국: 7세기경의 페르시아 서쪽의 아라비아제국을 말함.



그림 19. 三彩馬,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3349)



그림 20. 三彩馬,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3348)

(2) 騎馬人物俑과 馬夫俑

삼채로 제작된 의장용의 말과 달리 〈그림 21〉, 〈그림 22〉와 같이 여성이 타거나 죽은 자의 안위를 위해 시중드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마부와 함께 제작된 말은 대부분 토종말의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유약이 발리지 않은 소조로만 만들어져 색채가 거의 박락된 채 무덤에서 출토된다.

(3) 駱駝俑

낙타용은 당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도용중에 하나이다. 당대 실크로드가 번영하고 무역이 성행하면서 말과 함께 상업용으로 낙타가 대량 수입되었다. 당시 수입된 낙타는 대부분 쌍봉



그림 21. 騎馬人物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3)



그림 22. 馬夫俑·馬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9137, 본관7852)

낙타로 단봉낙타는 아프리카북부, 인도 등에서 사육되던 것으로 소량만 수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용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물건을 싣어 나르는 쌍봉낙타의 형태로 제작되어 매장되었다.

당대 초기에 제작된 도용은 한대 유행하였던 연유저화도 기법이 재출현하여 도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약에 첨가물을 넣지 않고 시유하였다(그림 23). 8세기 초부터 다양한 색의 안료를 넣어 제작되어 다양한 삼채도용이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색깔과 더불어 세세한 곳까지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8세기 무렵 제작된 도용들은 태토에 함유된 철분으로 인하여 태토의 색깔이 변하게 되므로 화장토를 한번 더 입히고 시유하여 더욱 밝은 질감을 얻게 되었다(그림 24).

낙타용은 보통 높이가 약 1m로 머리를 쳐들고 활보하는 모습이거나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온화하고 점잖으며 고귀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비범한 기백을 느끼게 한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쌍봉낙타는 운송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국적인 모습 때문에 당시 중원 지역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물론 음악, 무용, 기예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삼채의 장식과 조형 기법은 기존 단색유 도용의 단조로움과 투박함 그리고 판에 박은 듯한 한계를 탈피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후대에 민족 문화가 융합되고 대외 교류가 빈번하던 성당시기의 기개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牛 俑

당대 무덤에서 마용, 낙타용 다음으로 우용이 많이 출토된다. 우용은 뿔이 달린 황소 모습으로 우경이나 짐을 옮기는데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 우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춘추전국시대 소와 함께 농사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림 23. 駱駝俑,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7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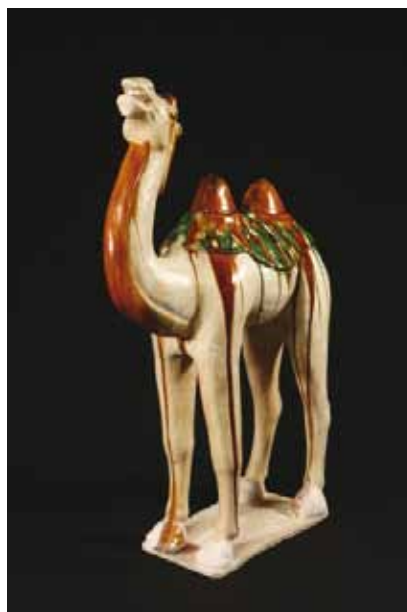


그림 24. 駱駝俑,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14209)



그림 25. 牛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7848)



그림 26. 牛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증6174)



그림 27. 牛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7838)

방향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철 제쟁기가 섬서, 산서, 산둥, 화북, 화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한대 화상석이나 화상전에 우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마차를 끌거나 경작에 이용된 소의 형상이 도용으로 만들어져 출토된 것은 수대(隨代, 581~618)부터이며 당대 도용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당대에 우경이 보편적으로 행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당



그림 28. 牛馬車俑, 唐(참고)



그림 29. 牛馬車俑, 唐(참고)

대 우용은 종종 수레와 공반 출토되거나 소의 등과 옆구리에 수레에 매여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소와 수레를 각각 만들어 수레를 소의 엉덩이 위에 걸쳐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8, 29). 〈그림 25〉의 우용은 금방이라도 땀이 맺힐 것 같은 코 잔등이와 콧구멍, 말뚝말뚝한 눈, 발굽 등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뿔룩한 배와 짧은 다리가 온순하면서도 우직한 표정도 사실성을 배가시킨다. 〈그림 27〉은 백색 분장토 위에 검은 색을 입혀 황소를 표현하였는데 볼록 튀어나온 등뼈와 볼록한 배, 뒷다리를 살짝 들어 표현한 것 등이 매우 해학적이다.

(5) 사자용

사자는 중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동물이 아니다. 唐太宗은 이란 등 서아시아 국가에서 사자를 조공으로 공납 받아 중국에 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유로 당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로 사자용이 부장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태토에 투명유약을 바른 중국 고유의 사자 조형으로 사자용을 만들었다. 당대 중기가 되면서 비로소 화려한 삼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사자는 외국에서 건너 온 이민족의 동물로 중화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중국인들의 전통사상을 깨지는 못하여 무덤에 매장할 때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오직 용보다 못한 또는 용을 대신하는 영엄한 동물로만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사자상은 입을 다물거나 입을 벌려도 용처럼 혀를 내밀지 못하도록 제작되었고 〈그림 30〉처럼 간혹 얼굴에서 가슴까지 한 줄의 붉은색을 칠하여 그 기를 누르는 장치도 하였다.



그림 30. 獅子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0)

2) 인물용

인물용은 당시의 복식과 머리 모양, 얼굴 모습, 생활 습성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각 시대별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문인, 무사를 비롯하여 시녀, 마부, 곡예용 등이 있다.

(1) 한대 인물용

한대 도용은 진대 도용에 비하여 3분의 1이하로 그 크기가 작아지며 얼굴이 둥글고 측면



그림 31. 男女俑, 西漢,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5707)



그림 32. <그림 31> 女俑의
측면, 西漢



그림 33. 人物俑, 西漢(참고)

에서 볼 때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단에 압형 성형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그림 31>은 한대 남녀용으로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 길이가 다른 윗도리를 겹쳐 입고 있다. 특히 여용은 외투의 깃이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여미고 머리를 길게 늘였으며 나팔모양의 긴 치마를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서한시기 도용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 서한시기의 도용 <그림 33>을 참고해보면 신분이 높을수록 윗도리를 이중 또는 삼중으로 겹쳐 입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우리 관 소장의 도용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은 평편하고 둥글둥글하며 눈은 약간 올라가 있으며 코는 직선이고 웃는 얼굴로 표현되어 있어 우리 관 소장 도용의 원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남북조시대 인물용

남북조시대 중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잦은 전쟁과 분열의 시기로 한족과 소수민족의 문화교류가 일어난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도용에도 반영되어 소수민족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 文吏俑

문리용은 관을 쓰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포를 입고 허리띠를 묶었다. 이 포는 북조시대 유행한 복식이다. 소매폭이 매우 넓으며 양손은 두손을 모아 소매 속에 감추었고 표정은 온아한

미소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조 시대 작은관(小冠)인 ‘平上幘’을 쓰고 있어 제작 년대를 알 수 있다(그림 34~36).

나. 男侍俑

남북조시대 무덤에서 남시용의 출토 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머리에는 소관을 쓰고 왼쪽으로 여미는 옷을 입고 있으며 바지를 입고 윗도리를 허리띠로 여미었다. 한대 도용과 비교하여 이미 매우 사실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차렷 자세를 한 형상으로 당시 하층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그림 37, 38).



앞모습

뒷모습

그림 34. 文吏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6686)

다. 風帽武士俑

바람막이 모자를 쓴 무사용은 남북조시대 말기 무덤에서 많이 보이는 형상이다. 무사는 투구를 쓰기 전 그 안에는 바람막이 천을 쓰고 있다.



앞모습

뒷모습

그림 35. 文吏俑, 南北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6685)



그림 36. <그림 35>의 복원도



앞모습



뒷모습

그림 37. 男侍俑, 南北朝, 사이즈, 번호



그림 38. <그림 37>의 복원도

깃 폭이 좁은 세워진 깃의 옷을 입고 그 위에 갑옷을 입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가운데 구멍이 있어 무기류의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39, 40).



앞모습



뒷모습

그림 39. 武士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6688)



그림 40. <그림 39>의 복원도

(3) 唐

가. 인물용

당대 도용은 남북조시대 도용의 명맥을 이어받은 초기와 중기 형상이 극명하게 다르다. 초기 즉 8세기 이전에 제작된 도용은 그 형태와 제작방법이 남북조시대의 것과 유사하며 단순하고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두 부분으로 제작하고 압형성형하여 옆에서 부착하였으며 머리카락 등은 따로 제작하여 후에 접합하였다. 대체적으로 마무리 상태가 거칠고 무기 등 별도로 제작하여 끼워 넣은 것은 현재까지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그림 41). 또한 대부분 유약을 바르지 않고 화장토 위에 직접 채색을 했거나 투명유약을 바르고 소성하여 채색이 거의 박락되었거나 단색의 도용 등이 많다.

이런 초기의 인물용과는 다르게 8세기 이후에 제작된 인물용은 얼굴과 몸체가 전체적으로 둥글고 풍만해지고 삼채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관 소장품은 대부분 8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42~46).

- 문리용: 소관을 썼으며 소매폭이 크고 두 손을 배위로 모으고 있다. 하급관리이다.
- 무녀용: 머리 모양과 복식으로 무녀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人物俑, 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14438)



그림 42. 文吏俑(하급관리),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4)



그림 43. 舞女俑,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4)



그림 44. 侍女俑,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4)



그림 45. 男裝女立俑,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4)



그림 46. 躬身男俑(하금관리/서기), 唐 初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7854)

- 시녀용: 당대 특징인 단도머리에 가슴까지 오라오는 치마를 입고 있다.
- 남장여입용: 관의 모양과 복식으로 남장 여장임을 알 수 있다.
- 궁신남용: 두손을 모아 가슴위로 올리고 몸체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나. 胡人俑

唐代 서역의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에 유입되면서 가늘고 긴 다리가 특징인 아라비아계통의 말, 낙타와 함께 호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진다. 당대 호인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호인과 좁은 의미의 호인이 있었는데 좁은 의미는 서역인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는 東으로는 일본, 南으로는 페르시아 터키까지 포함되며 北으로는 돌궐, 회궐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호인은 점차 마용이나 낙타용의 하인이나 마부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무덤에 매장되기 시작하였다. 당대 도용이 삼채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호인용의 모습은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고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어 당시 도용의 제작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중국문화 속에 이국의 문화가 어떻게 녹아들어 갔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림 47〉의 호인용은 머리에 뾰족한 尖頂帽를 쓰고 오른쪽으로 여민 翻領의 짧은 포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매고 직조신발을 신고 있다. 고깔모자는 일종의 관모로 서역의 고대 거주민과 북방민족 중에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의 표시이기도 하다. 新疆省 若羌縣 로보노르⁷⁾ 서



그림 47. 胡人俑,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3347)



그림 48. 胡人俑(쿠차인), 唐 中期,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3346)

북쪽 古墓에서 나온 시신의 머리에서도 이런 모자가 발견되었다. 『漢書』에는 고깔모자를 즐겨 쓰던 쉐인(사이프러스)이 서역에서 존재했던 것이 戰國時代라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고깔모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모자는 어떠한 소수민족의 모자가 아니라 서역 및 북방에 많은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모자로 보여진다.

〈그림 48〉의 호인용은 머리를 어깨 위로 찌르고 천으로 머리를 묶은 쿠차인이다. 半肩을 입어 어깨가 봉긋하고 翻領의 짧은 포를 오른쪽으로 여민 호복을 입고 있다. 하의는 좁은 바지를 입고 직조신발을 신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는 습성은 서역 또는 북방지역에서 유행하였던 것으로 몽고인종의 가장 전형적인 머리이다. 이러한 쿠차인의 모습은 중국 국가박물관 소장인 〈梁職貢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49).

다. 說唱俑

說唱이란 본래 한 사람이 작은 북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던 것으로 운문과 산문을 반복하여 소리로 표현하는 희곡과唱的 중간 형태이다. 배우는 故事의 인물 목소리와 분위기를 흉내 내어 공연하는데 때로는 승려가 설파를 목적으로 경전을 설창하기도 하였다.

7 로보노르: 중국 신장 동남쪽에 위치한 염호.



그림 49. 梁職貢圖 唐閻立本王會圖(가장 오른쪽 쿠차인 참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도용은 東漢時期(25~220년)의 도용으로 四川省에서 출토된 복치며 춤추는 노인형상이다. 표정이 매우 사실적이고 익살맞다(그림 50).

이러한 설창은 당나라 때 속강⁸⁾과 시장에서 소설을 읊던 형식에서 예술로 새롭게 부흥한다. 설창자는 지금까지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서사 위주의 어투에서 연기하는 일인극으로 고사 속의 인물을 연기한다. 설창은 이렇게 唐代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 희극적 요소가 더해져 北京의 京劇을 비롯하여 昆曲, 越劇, 豫劇, 湘劇, 川劇 등 50여 개의 지방 희곡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일상에서도 문학과 예술을 즐겼던 고대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스란히 도용의 모습으로 분하여 무덤에 매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설창용은 송대에 제작된 것으로 단채로 피리를 불고 박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다. 宋代 說唱 공연 장면을 묘사한 도용으로 당시 민간문예의 자료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그림 51).



그림 50. 說唱俑, 東漢,
中國 四川省 출토(참고)

8 속강: 당나라 때 사원에서 불경을 해설할 때 쓰던 說唱이다. 속강을 당대 사람들은 “변문”이라고도 하였다. 일찍이 사람들은 경문고사를 창하여 종교를 선교하는 활동에 사용하였다. 속강은 음문과 산문이 번갈아가며 반복하여 하는 일종의 문화 결합체로 창과 대사의 중간적 예술형식이다.



그림 51. 說唱俑, 宋,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3272~3279)

IV. 맺음말

중국도용은 商代에 처음 제작되어 秦·漢代 한 번의 발전을 거쳐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지역별로 유지하다가 唐代에 다시 부흥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도용이 무덤에 매장하는 것은 漢族의 풍속으로 주로 황하강유역에서 발견된다. 황권을 계승한 北宋時代까지 종이로 만들어진 明器와 함께 부장되다가 이후 이민족의 황권 쟁탈로 점차 쇠퇴하여 清代 도용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덤에 지속적으로 매장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도용은 한대, 남북조시대, 당대,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1920년대와 2000년대 구입되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유로 수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출토지가 불분명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출토된 도용들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용도, 제작시기 등을 밝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이 망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대변하고 당대에 와서는 형태의 사실성과 입체감이 극대화되어 대상의 내면까지 표현하는 예술의 경지에 까지 이르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또한, 유약이 발리지 않은 남북조시대의 도용은 표면 박락이 심하여 당시의 색채를 알 수 없었으나, 중국에서 출토된 도용과 비교하여 그래픽으로나마 복원할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도용은 각 시대에 예술품을 만드는 기술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물로 도용을 통해 당시 생활상뿐만 아니라, 복식, 의식구조, 경제활동, 사고의 표현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자료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 胡小麗, 韓建武 編著, 2001, 『中國陶俑真偽鑑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 成占民, 時國淑, 關平 編著, 2001, 『中國古代器物大辭典』, 河北教育出版社.
- 何賢武, 王秋華 編著, 1993, 『中國文物考古辭典』, 遼寧科學技術出版社.
- 楊可揚 編輯, 1991, 『中國美術全集 工藝美術編 1,2』, 上海人民美術出版社.
- 『孟子』, 1982, 中華書局.
- 『唐六典』, 1982, 中華書局.

Understanding the Chinese Terracotta Figurines Collect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Oh, Se-eun

In order to understand Chinese Terracotta figurines, this paper first explains their transitional patterns by describing their production date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In China, the terracotta figurine was first produced to replace human sacrifices. Interment of these in burials was institutionalized later for signalling the status of the deceased. This was a custom of the Han ethnicity,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hang Dynasty. This custom was further developed in the period of the Qin and Han Dynasties and was maintained for over 1,000 years. It was revived in the Tang Dynasty.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is paper classifies Chinese terracotta figurines into two types: imaginary and daily life types. The imaginary type, which is further subdivided into tomb guardians and the twelve zodiac animals, was interred in places such as the tomb entrance to pray for the peaceful life of the dead. The daily life type depicted people and animals that actually existed with the deceased, such as vassals and servants of the dead, horsemen, dancers, horses, cows, camels, for accompanying the deceased on his or her final path. These figurines also signified hope that the dead would live comfortably in his/her afterlife.

These figurines were the essence of arts and techniques of each period. They were revived as *Sancai* (three colours) ceramics in the Tang Dynasty. Therefore, the Chinese terracotta figurine, which was the representative artwork of each period, was the masterpiece that indirectly expressed the thought of the contemporary people.

Key words: Chinese terracotta figurines, elaborate funerals, figurines for calming grave, *Sancai*, singing dolls

고고학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송의정 편집위원 : 홍진근, 신영호 간사 : 윤용희

考古學誌 第19輯

2013年 12月 24日 發行

發行 國立中央博物館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우)140-797

Tel. 02-2077-9467

<http://www.museum.go.kr>

製作 (주)통천문화사 (02-737-7419)

ISSN 1229-6643
